

치매와 연관된 윤리적 쟁점들



나 해 리

보바스 기념병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신경과

Approach to the ethical issues

Hae Ri Na,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Bobath Memorial Hospital, Seongnam Senior Health Center

윤리(ethics)라 함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여 도덕적인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이를 구성하는 많은 접근방법들은 문화적, 시대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의과학적 지식과는 달리 의료윤리는 그 자체로 문화적인 현상이며 해당 문화의 윤리적 전통과 풍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인종이나 문화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의과학적 지식이나 능력과는 달리, 의료윤리는 그 자체로 문화적인 현상이며, 해당 문화의 윤리적 전통과 풍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소위 “보편적 역량(universal competence)”과 “국지적 역량(local competence)”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 혹은 관련종사자들은 질환의 진행과정에서 병전단계, 질환의 각 시기별로 치료나 돌봄, 환자의 인권이나 안전, 법적인 문제 등의 다양하고 많은 윤리적인 결정과 연관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들은 말기 치매 환자의 치매치료중단유무, 말기임종치료, 치매환자의 운전, 법적 권리 행사, 영양(feeding), 환자추적장치(electronic tracking), 유전자검사(genetic testing), 임상연구참여 여부와 방법, 요양원 입소 결정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존재할 뿐 정답이나 최선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원칙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풍습, 현시대에 맞춘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치매환자나 가족, 관련종사자들이 여러가지 관심 문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나 윤리 협회 권고안, 우수 사례,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다루어 나가도록 한다.

본 연자의 지난기간을 생각해 보면 치매환자들을 치료하며 환자나 가족들을 대할 때 어려웠던 점들은 환자들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들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결정에 조언을 요구받는 일이었다.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많은 상황을 치매를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제는 치료에 대한 원칙적인 치료방침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확장되어 많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돕는 일과 이에 대한 원칙제공으로 신경과 의사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Dementia, Ethical issue, Dignity, Autonomy

Hae Ri Na, MD, PhD

Director, Brain Fitness Center, Bobath Memorial Hospital 155-7,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2, Korea

Tel: +82-31-786-3520 Fax: +82-31-786-3522

E. neuna102@paran.com